

SOCIETY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악성 민원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 ‘피멍’

중학교 학교군·중학교 확정

광주교육청, 일부 개정 고시

광주시교육청은 10일 누리집에 ‘2026학년도 광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교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이번 일부개정 고시는 지난 5일 광주시의회 제336회 임시회에 고시안이 통과되면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개정 고시안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행정동이나 교명 변경 사항을 반영했으며, 내년 3월 개교하는 북구 용두동 잠미르초등학교와 광산구 운수동 운수초등학교 소속 학교군을 지정했다.

또 제2학교군 소속이던 빗어울초등학교의 배정을 3학교군까지 확대했다. 이번 조정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한 ‘광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교 개선 운영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 고시는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빗어울초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희망할 경우 제3학교군으로 진학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중학교 학교군·중학교 고시는 시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수요자 의견과 학생 배치 여건 등을 면밀히 살펴 중학교 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최근 3년 광주 507건·전남 24건...안전요원 28% 배치

광주 동구·목포·여수 등 12곳 미배치...신변위협 호소

광주·전남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전체 행정복지센터 380곳(광주 96·전남 284)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107곳(광주 40·전남 67)이었다.

이중 광주 5개 자치구는 96개 동행정복지센터에 45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됐다.

반면 동구는 13개 행정복지센터에 단 1

명의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서구는 18개 센터에 4명이 순환근무 하고 있다.

남구는 17곳 중 9개 센터에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으며 17명의 요원이 근무 중이라고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했다.

광산구는 21개 센터 중 1곳에만 1명을 배치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에서 22.8%만 안전요원을 두고 있다. 순천시 26개 행정복지센터, 강진군은 11개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을 뒀다.

하지만 목포시, 여수시, 곡성군, 보성

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내 행정복지센터에는 안전요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최전방 행정기관이자 민원 대응의 최일선 창구이지만,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센터가 많아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3년간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 행위 건수는 광주 507건, 전남 24건 등 총 531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폭언이나 욕설뿐만 아니라 기물 파손 행위, 폭행 및 살해 위협 등 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관련 문의도 동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한 민원인이 “밤길 조심

해라. 나 흥기 들고 다닌다”고 협박하거나 여직원을 성희롱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위험물 소지 등 주취 상태로 욕설을 하거나, 수심 자레 전화해 업무처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 잦은 정보공개 청구 등의 경우도 있었다.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돕고 있다’며 대리인을 자칭, 수시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자체는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내 직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악성 민원인 근절을 위한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휴대용 보호장비, 비상벨 등을 보급하거나 경찰·변호사와 협력 체계 등을 통해 직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 대책은 대부분 구

청이나 군청 등 상위 기관에 집중돼 있어 일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은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는 광주와 전남에 국한되지 않았다.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곳(20%)에 불과했으며, 지난 3년간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도 총 1만209건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을 처리하는 최일선 기관이지만 악성 민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안전요원 배치 확대, 전담부서 신설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남구, 광주천 일대 통제 차단기 확대

예산 2억원 투입...양림교·학강교 등 5곳 추가 설치

광주 남구가 예산 2억원을 투입해 광주천 일대에 출입 통제 차단기를 확대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지성 집중 호우 등 많은 비가 내릴 때 원격 통제로 시민들의 하천 접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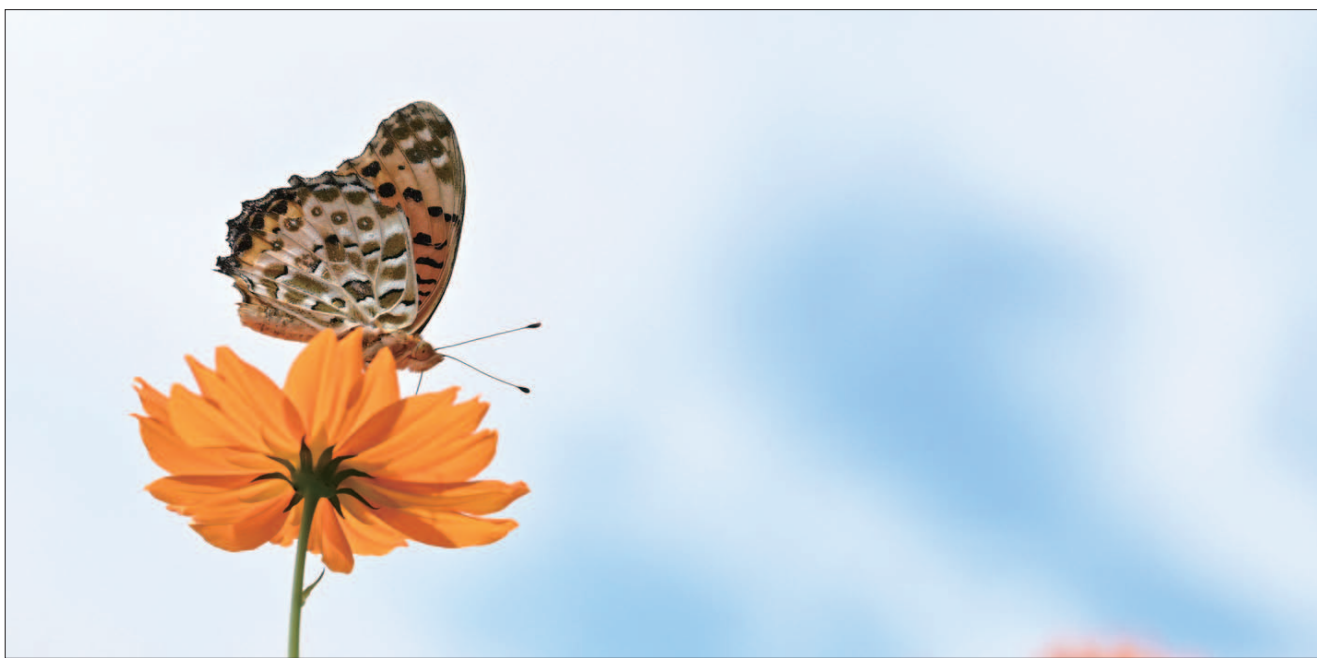
현재 남구가 관할하는 광주천 주변 진출입로는 총 14곳이다.

특히 광주천 주변 진출입로가 광주대학교

부터 설월교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흩어져 있어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에 출동해 차단줄을 설치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10월부터 공사를 시행해 광주천 수계에 있는 금교와 양림교, 학강교, 남광교, 학림교 진출입로 5곳에 원격 차단기를 11월까지 설치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가을이 온다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인 10일 담양 한 농가 울타리에 활짝 핀 노란 코스모스에서 호랑나비 한마리가 날개짓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공의 복귀했어도...전남대병원 충원율 68%

정원 미달 지속·의료 공백...화순전남대병원 55.3%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돌아왔지만 전남대학교병원의 의료 공백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구분)의 '전공의 장·현황 현황(하반기 모집 결과 반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원 2861명 중 현재 1956명(68.3%)의 전공의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여전히 전체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의정감등 전인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전공의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실제로 2023년 12월 기준 14.4%(정원 2608명 대비 현원 2233명)였던 국립대병

원의 전공의 결원율은 31.7%로, 17.3%p 가장 상승했다.

국립대 병원 간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본원)의 전공의 충원율 80.4%, 전북대병원 71.7%에 달했다. 반면 경상국립대병원(창원) 42.6%, 경북대병원(칠곡) 52.8%, 전남대병원(화순) 55.3%, 충북대병원 60.0%에 그쳤다. 전남대병원(본원)도 68.0% 수준이었다.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 대상인 필수 의료8개 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정신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으로 전공의 수를 한정해 살펴보면, 전공의 충원율과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2023년 12월 81.1%였던 전체 국립대병원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현재 55.7%로 25.4%p 하락했다. 15개 병원 중 10개 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50%를 밑돌았다.

백승아 의원은 “만성적인 필수과 전공의 부족, 누적된 재정적자 등으로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필수의료는 물론 의학교육, 임상연구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교류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수과 전공의 확보와 안정적인 수련환경 조성, 그리고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국립대병원들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불닭 캐릭터 ‘호치’ 광주 충장로에 상륙

내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굿즈 기획전’

K-푸드 대명사로 알려진 불닭 캐릭터 ‘호치(HOCHI)’가 오는 12월 광주 충장로에 상륙한다.

10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닭을 형상화한 캐릭터 ‘호치’의 체험형 팝업스토어가 12일부터 10월19일(오전 11시~오후 8시·매주 월요일 휴무)까지 충장로71-1에 문을 연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인기 캐릭터(IP) 기반 팝업 유치로 공식 상가를 채우고, 체험형 방문을 즐겨 충장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체험형 팝업스토어는 지역 로

컬브랜드와 함께 올 상반기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강원 춘천시, 속초시 등에서 진행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유명세를 활용해 광주의 한 디자인 개발회사가 만든 캐릭터 ‘무스(MOOS)’의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동구는 굿즈 기획전을 열고, 소비자가 브랜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팝업스토어(1~2층)를 선보인다.

12월 개장 당일에는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2만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 패이백, 캐릭터 포토 퍼포먼스, OX 퀴즈 등 이벤트를 열린다.



호치의 특징은 5대 5 가르마 투블럭 만디컷이며, 양쪽 볼에는 흉조가 있다. 한쪽 발에만 양점을 가리기 위해 벌무늬 빨간 양말을 신는다.

동구는 운영기간 동안 방문객 반응과 매출 데이터를 모니터링해 팝업 유치 모델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팝업을 시작으로 10월2일 정식 오픈 예정인 ‘홍콩곰곰(충장로3가)’ 등 인근 콘텐츠와 연계해 문화와 소비, 체험 동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송대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N-NEXUS

N넥서스 시리즈는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엔에이치에스 IT 기술이 탑재된 자사의 브랜드입니다.

NH NETWORKS

엔에이치에스네트웍스(주)

TEL 062-719-1080~2

연 구 & 제 배 통합영상관리, 지능형 영상장치 솔루션, 제2차시 솔루션

제 조 & 제 작 주·정체 인식 및 CCTV 시스템

E S S 시 스템 신재생 에너지 및 LED 조명 시스템, 구조물 및 형상인식, 어린이 안전 영상 보조 장치

설 계 & 자 문 유·무선/광 전송망, 서버/네트워크, 영상관리, 보안·지능형영상·영상처리 시스템

유 지 보 수 & 감 리 ICT 장비, ICT 운영 및 유지보수

시 장 & 설 치 정보통신망사, 스마트시티 설계, 광학 ICT 분야 설계, ITS 설계, 열차무선 시스템, 해안방위통신망